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3월 말 현재, 향후 1년간 인플레 기대치 떨어져... 2년 만에 최저
- Bloomberg: 소비 감소로 연준 선호 인플레 수치 당초보다 상승세 줄어

[SVB 사태와 미국 금융]

- Bloomberg: 미 은행들 장부상에 6천2백억불 미실현 손실...향후 재정압박
- WSJ: 백악관, 중간크기 은행 롤 더 엄격 감독
- WSJ: 미 주식과 채권 시장 예측, 불분명한 상태다
- WSJ: 도표로 보는 미국인 은퇴 자금 내역들

[미국 생활]

- NYT: 재택근무 숫자 측정 방식, 기관마다 달라
- WSJ: 미국인 대부분, “대학 교육 받을 만한 가치 있나?” 의구심

[부동산]

- CNBC: 올 봄 주택 시장에 매물 여전히 적다

[에너지]

- WSJ: 석탄 가격 떨어져... 풍력과 솔라 에너지는 상승 예상
- WSJ: 녹색 에너지, 재정적으로 발목 잡혀

[중국 경제]

- WSJ: 중국, 소비 지출로 회복 반등 계속 진행

[전기 자동차]

- WSJ: 미국의 새로운 EV 규정 탓에 보조금 혜택 모델 줄게 된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발 벗고 나선 스타벅스 새 CEO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Year-Ahead Inflation Views Retreat Again, Lowest Since 2021

3월 말 현재, 향후 1년간 인플레 기대치 떨어져... 2년 만에 최저

- 미시간대학의 오늘 발표에 따르면 향후 1년치 소비자들은 인플레 기대치가 2월엔 4.1%, 3월에 3.8%, 3월 말 현재는 3.6%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 또한 미 소비자들이 현재와 미래 경제 여건이 악화할 것으로 보고 있음에 따라 소비자 감정지수는 2월의 67에서 이달에는 62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예상 평균치는 63.3이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Fed-Favored Inflation Gauge Rises by Less Than Forecast, Spending Moderates**소비 감소로 연준 선호 인플레이 수치 당초보다 상승세 줄어**

- 인플레이 핵심 수치가 2월에 예상보다 둔화되고 소비자 지출도 안정세를 보 이면서 연준이 수십년만에 가장 공격적인 금리 인상의 가까워지지 않느냐 하는 상황이다.
- 변동성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연준 선호하는 개인 소비지 지출 가격 지수(PCE: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price index)는 2월에 0.3%만 올랐다고 연방 상무부는 오늘 금요일 밝혔다.
- 물가가 조정된 소비자 지출은 1월 초의 1.5% 상승한 후 2월에는 0.1% 줄 었다. 이같은 감소는 상품과 서비스 지출이 줄었음을 말한다.

Bloomberg 기사

[SVB 사태와 미국 금융]**Bloomberg: US Banks Have \$620 Billion of Unrealized Losses on Their Books****미 은행들 장부상에 6천2백억불 미실현 손실... 향후 재정압박 가능성**

- 대부분의 은행들이 장부상에 손실을 견딜수 있는 만큼 강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그들의 재정은 앞으로 수년간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
- 작년 말 현재 저수익 채권 투자로 인해 은행 전체 산업의 장부상 미현실 손 실이 6천2백억달러에 이르렀다. 다행히 대부분의 은행들은 이를 관리 할 수 있다는 것.
- 그러나 투자자들과 예금자들은 막대한 손실 채권에 앉아 있거나 뭉개고 있 는 대출 기관들에 대해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 일부 전문가들은 따라서 “은행들로부터 인출은 계속되는 반면에 채권 수익은 고정적인 상황”이라고 재정 부담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WSJ: White House Calls for Tougher Midsize Bank Rules**백악관, 중간크기 은행 룰 더 엄격 감독**

- 백악관은 연준과 다른 규제 당국이 중형 은행에 더 강한 룰을 적용토록 요구했다. 해당 은행들은 자산 규모는 1천억달러에서 2천5백억 달러로 작년 말 현재 대략 20개 은행들이 적용될 것으로 Federal Financial Institutions Examination Council은 밝혔다.
- 이같은 엄격한 룰에는,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은행들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이른바 '스트레스 테스트', 더 엄격한 자본과 유동성 요구 조건등이다.

WSJ 기사

WSJ: Wild Quarter for Markets Might Foretell Further Turbulence 미 주식과 채권 시장 예측, 불분명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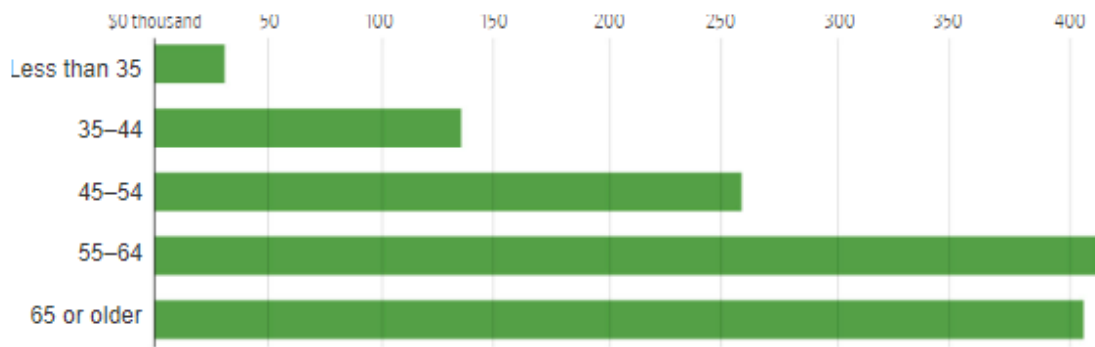
- SVB 사태로 흔들렸지만 미국 시장은 올해 1분기 그런대로 잘 버틴 기간이었다.
- 물론 여전히 시장 참가자들은 인플레이가 점차 하락하는 등의 이유로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지만, 연준의 공개적인 언급은 그와는 다른 상황이다.
- 주식 시장은 다소 회복되었지만, 이같은 회복이 얼마나 갈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현재로서는 은행 부분의 위기가 상대적으로 진정된 것 처럼 보이기 때문에 연준이 가까운 미래에 금리를 인하할 강력한 이유가 없다는 것.
- 다른 분석가들은 “가장 큰 문제는 더 높은 금리와 긴축 재정하에서 경제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 앞으로 경기 침체가 와도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상황을 더 악화시킬 요인이 숨어있는지 찾아내야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한다.

WSJ 기사

WSJ: Here's What Retirement Looks Like in America in Six Charts 도표로 보는 미국인 은퇴 자금 내역들

- 65세 이상 은퇴자들의 노후 계좌에 있는 가계 잔액은 평균 \$407,58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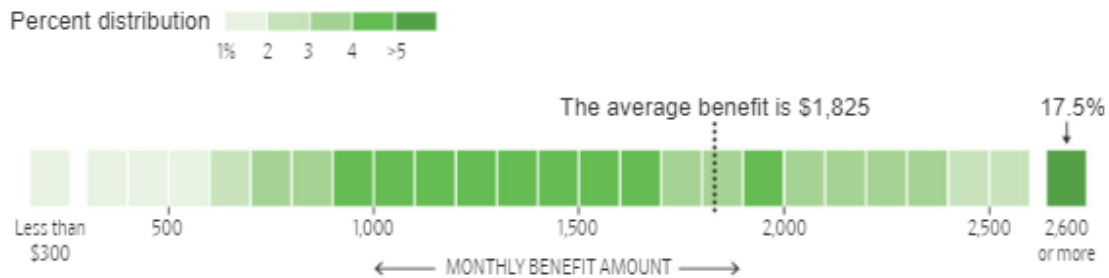
Average household retirement savings account balance, by age



Note: Estimates of 401(k), IRA, Keogh and other defined contribution account balances based on 2019 data
Source: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

- 은퇴후 받는 정부 소셜시큐리티 평균 금액은 \$1,825로 작년보다 8.7% 늘었고, 올해 짝 찬 연령에 은퇴한 경우 \$1,825까지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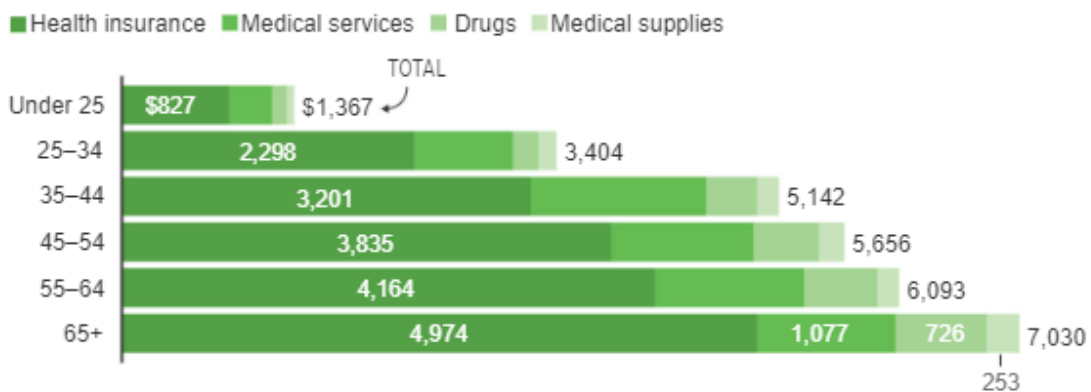
How much Americans get in Social Security benefits



Sourc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 65세 이상이 가장인 가구의 연간 평균 의료비는 \$7,030, 서플리멘터리 메디케어 플랜은 \$4,974, 안과및 치과 서비스는 연평균 \$1,077이며 처방및 비처방약과 비타민 같은 의약품은 \$726 지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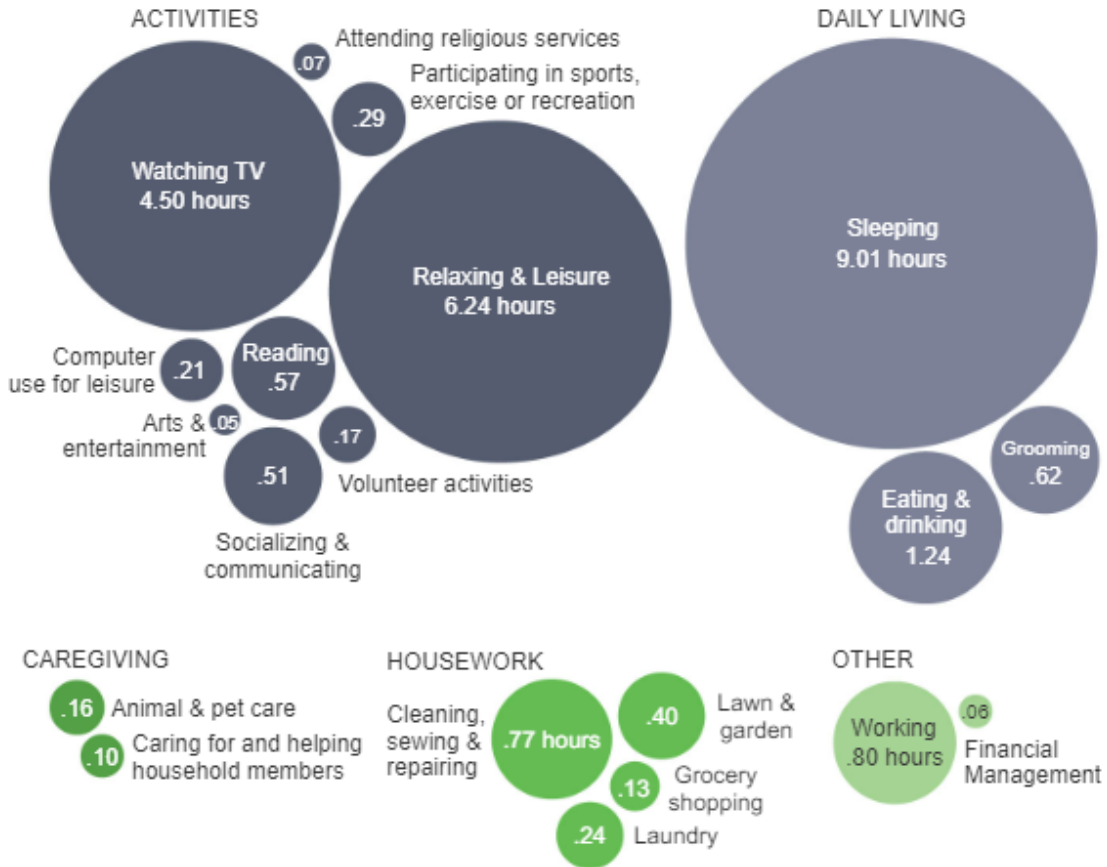
Average health expenses, by age



Source: Labor Department

- 은퇴후 생활은 일할 때 하지 못한 여행과 관심사 하기 등인데 은퇴하기 전에 그런 활동을 할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아래 도표는 이들이 보내는 활동들.

How retirees spend their days



Note: The data in the chart adds up to more than 24 hours because some of the categories are components of others.
 Source: Labor Department

Median household net worth by age



Source: Federal Reserve

WSJ 기사

[미국 생활]

NYT: Do We Know How Many People Are Working From Home?

재택근무 숫자 측정 방식, 기관마다 달라

- 미 노동부는 지난 주 원격 작업이 감소되었다고 발표했다. 기업의 72.5%가 직원들이 거의 또는 전혀 원격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2021년 60.1%에서 증가한 것으로, 팬데믹 이전에 원격 작업이 없었던 76.7%에 상당히 근접한 수치다.
- 그러나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원격 근무가 여전히 만연하다. 원격 근무는 미국의 유급 풀타임 근로일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2021년의 33%에서 약간 감소한 것이다.

- Partnership for New York City에 따르면 금융 서비스 회사 직원들이 사무실로 복귀하고 있다. Partnership은 금융 서비스 회사의 1월 말 일일 사무실 출근률이 59%라고 보고했다. 기술 산업은 43%였다.
- 아마존은 지난 달 기업 근로자들에게 5월부터 주 3일간 사무실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디즈니는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4일동안 사무실에서 근무하라고 요청했다. 다른 경영자들도 원격 작업의 장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Salesforce의 최고 경영자인 Marc Benioff도 올해 일부 직원들의 생산성이 저하되었다고 우려하기 시작했다.

NYT 기사

WSJ: Americans Are Losing Faith in College Education, WSJ-NORC Poll Finds

미국인 대부분, “대학 교육 받을 만한 가치 있나?”의구심”

- WSJ과 NORC 공동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대학 학위에 비용을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조사에 미국인의 56%가 4년제 학위를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반면, 42%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 1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학생 부채와 4년제 대학 졸업률이 60%인 점이 대학 교육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 이번 조사에 따르면 대학 신뢰도 하락은 도시와 교회 거주자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학에 대한 믿음이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은 2017년 56%에서 44%로 감소했고, 여성들의 신뢰도는 54%에서 44%로 떨어졌다.

WSJ 기사

[부동산]

CNBC: More home sellers are sitting out of the spring housing market 올 봄 주택 시장에 매물 여전히 적다

- Realtor.com 에 따르면 3월 신규 주택 매물 건은 계속 하락하여 작년 3월보다 20% 감소했다. 신규 매물 리스트의 감소는 2월에 발표된 16% 하락보다 더 크다. 올해 3월 신규 매물 건수는 팬데믹 이전보다 거의 30% 낮다. 매매용 주택의 재고는 지난해 봄 초보다 60%가량 늘었지만, 2019년 봄 초의 절반 수준이다.
- 3월 초에 주택 담보 대출 금리는 약간 하락했다. 하지만 Mortgage News Daily에 따르면 30년 만기 고정 금리는 현재 6.61%로 1년 전보다 2%p정도 높다.
- S&P Case-Shiller에 따르면 올해 집값은 작년 초보다 여전히 높지만 지난 7개월동안 하락했다. 1월에는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의 가격이 현재보다

낮았다. 가격이 급등했던 피닉스는 현재 거의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애틀랜타와 마이애미와 같은 남부의 시장은 여전히 큰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다.

CNBC 기사

[에너지]

WSJ: Coal Prices Tumble While Use of Wind Power, Solar Energy Leaps Ahead

석탄 가격 떨어져... 풍력과 솔라 에너지는 상승 예상

- 석탄 가격이 작년보다 폭락했다. 중부 애팔래치아의 석탄 가격은 쇼트톤당 88.80 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연초의 205.55달러에 비해 57% 하락한 것이다. 화력 석탄의 가격은 작년 9월 이후 절반 이상 하락했고, 호주에서 태평양으로 수송되는 석탄 가격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 에너지 정보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 따르면 석탄 가격의 하락에도 천연가스는 최근 백만 BTU당 3.10달러에서 3.55달러 사이로 가격이 올랐다. 이는 천연가스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석탄 가격이 더 하락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 수십 년 동안 석탄은 미국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태우는 주요 연료였다. 그러나 FactSet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환경 오염 우려로 인해 미국의 석탄 화력 발전 용량이 36% 이상 감소했다. EIA에 따르면 발전소 관계자들은 올해 석탄 화력의 4.5%를 더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 연소 능력이 감소함에 따라 투기적 생산을 위한 자금 조달도 감소했다.
- 석탄은 또한 풍력, 태양열, 수력 등을 포함한 재생 에너지와의 경쟁이 늘고 있다. 이들은 석탄보다 많은 미국의 발전량을 차지했다.

WSJ 기사

WSJ: Green Energy Is Stuck at a Financial Red Light

녹색 에너지, 재정적으로 발목 잡혀

- 한마디로, 기업들의 녹색 에너지 개발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한가지 이유는 부채 차입 이자율이 높는데 있다는 것이다.
- 풍력 및 태양광 산업은 항상 보조금 혜택 받는 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었는데, 연방 세금 공제가 종종 1년 단위로 연장되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작년의 기후 법안은 그것을 바꾸어 적어도 10년은 지속되는 산업 보조금을 주게됐다. 그러나 두 가지 중요한 성장 동력인 금리와 장비 비용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WSJ 기사

[중국 경제]

WSJ: China's Consumers Extend Economic Rebound From Pandemic**중국, 소비 지출로 회복 반등 계속 진행**

- 중국 서비스 부문의 활동 지표가 1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엄격했던 코로나19 통제가 끝난 후, 중국 소비자들이 경제 회복에 힘을 실어 주면서 상점과 식당으로 다시 향하고 있다는 신호다.
- 서비스와 건설을 포함하는 중국의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2월 56.3%에서 3월 58.2%로 올라 2011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비스 부문에만 초점을 맞춘 지수는 56.9%로 2012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제조업 PMI는 2월의 52.6%에서 3월 51.9%로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50선을 유지했으며,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했던 51.3%를 넘겼다.
- 새 주택 매매의 민간 지표는 3월에 2개월 연속 상승이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의 주택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징후이다. 중국 부동산 정보 회사에 따르면 중국 내 100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매출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29% 증가한 962억 달러에 달하고, 3월 매출도 2월보다 42% 높았다.
- 비록 초기 징후는 좋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 소비의 회복이 얼마나 지속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에 대한 경제의 지속적인 균형 조정을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들이 가계 소득을 늘리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들이 말했다.

WSJ 기사

[전기 자동차]

WSJ: New EV Rules Mean Fewer Models Eligible for Tax Credit**미국의 새로운 EV 규정 탓에 보조금 혜택 모델 줄게 된다**

- 새로운 EV 규정은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배터리와 광물에 덜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동차 구매자들이 7천 5백 달러의 세금 공제를 청구하려면, 북미에서 만들어진 구성품과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한 광물을 일정량 포함해야 한다. 이 기준은 4월 18일부터 적용된다.
- 자동차혁신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전기차의 43%가 세액공제 대상이며, 지난 8월보다 92%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10~12월 분기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28만 2천 대가 넘어 전년 동기 대비 51%가 증가했으며, 전체 차량 판매량의 8.5%를 차지했다.
-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면, 차량이 규정을 충족해야 3,750 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배터리 광물의 최소 40%를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추출, 가공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해야 한다. 그 비율은 2027년까지 80%로 증가할 것이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WSJ: Starbucks's New CEO Trained as Barista to Prepare for Role
발 벗고 나선 스타벅스 새 CEO**

- 스타벅스의 새로운 CEO인 Laxman Narasimhan은 고객들의 불편함을 이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일선 가맹점에서 직원들과 함께 일했다. 그는 이달 초 시카고 사우스 사이드의 스타벅스에서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면서 “서비스 하는 직원 입장을 이해 하기 위해 나섰으며 매달 다른 가맹점에서 4시간씩 일하고 다른 임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스타벅스는 최근 분기에 기록적인 매출을 올렸지만,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고객들은 음료 주문을 위해 카페나 드라이브 스루 차선에 줄을 스는 등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한다. 스타벅스는 매장과 노동 상황 개선을 위해 향후 3년동안 수십 억 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다.

WSJ 기사

[보고서]**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美 반도체주가지수 1년 새 최고치...AI수요에 업계 낙관론 솔솔"**

세계 반도체 산업의 매출 감소세가 인공지능(AI) 기술 관련 수요에 힘입어 바닥을 찍었다는 낙관론이 커지면서 반도체 업종의 대표적 주가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0일(현지시간) 거의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지수는 전날 3.27% 급등한 데 이어 이날도 1.62% 올라 3,208.26으로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4월 6일 이후 최고치다.

미국의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독일의 인피니온 등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낙관적인 전망 발표가 잇따르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 지수는 올해 들어 26.7% 치솟아 1분기 상승률이 2020년 2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중 엔비디아는 87.4% 뛰어올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에 포함된 종목 가운데 다섯번째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며, AMD도 51.1% 넘게 치솟았다.

마이크론은 지난 28일, 2023회계연도 3분기(3월~5월) 매출이 작년 동기에 비해 약 60%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